

원대(元代) 질손복(質孫服) 중 ‘모자(毛子)’에 관한 고찰

최규순* · 包銘新

上海, 東華大學 服裝學院 博士生* · 上海, 東華大學(前中國紡織大學) 服裝學院 教授(博士生導師)

중국 원대 복식 중의 독특한 칭호로 ‘모자(毛子)’가 있다. 『원사(元史)·여복지(輿服志)』 황제와 백관 질손복 기록 중 홍모자담납(紅毛子答納), 백모자금사보리(白毛子金絲寶裏), 타갈모자(駝褐毛子), 천홍모자(茜紅毛子), 백모자(白毛子) 등의 명칭이 있고, 『원사·백관지(百官志)』에 공부(工部) 소속의 삭주모자국(朔州毛子局)과 저장원(儲政院) 소속의 상도이양모자국(上都異樣毛子局), 풍주모자국(豐州毛子局), 진산모자선장국(縉山毛子旋匠局) 등의 모자국이 있어, 원대 사회생산과 복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중국 학술계에서 그 명칭에 사용된 ‘모(毛)’字를 따라 모직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모자’가 모두 여름철 복장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착오로, 여름철이면 황제가 수도를 떠나 피서를 가는 상황에서 모직물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본고는 한중(韓中) 양국 사이의 무역과 문화교류의 각도에서 ‘모자’ 명칭의 유래와 직물의 종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박집람(老朴集覽)》에 의하면, 우리말의 모시[毛施布]는 중국어의 저마포(紵麻布)를 지칭하는 ‘목사포(木絲布)’, ‘몰사포(沒絲布)’에서 와전된 것으로, 후에는 중국인도 고려포[麗布]를 보면 고려인의 칭호를 따라 지칭하게 되었다 하였다. 즉 고려인이 ‘목사(木絲musi)’, ‘몰사(沒絲mosi)’라는 단어를 그 중국어 발음에 따라 ‘모시’라 발음하였고, 이를 글로 표기할 때 ‘모시’라는 우리말 발음에 부합하는 한자인 ‘毛施’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중간의 언어 교류 과정에서 저마포에 대한 지칭으로 ‘모(毛)’가 쓰이기 시작했고, 고려 숙종(肅宗) 8년(AD1103년) 서장관(書狀官)으로 개경에 왔다가 송(宋)의 손목(孫穆)은 《鷄林類事》에 “저를 모[시]라 하

고, 저포를 모시배라 한다(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라고 당시 고려의 단어를 소개하였다.

고려의 모시는 그 직조기술이 매우 발달하여 서궁(徐兢)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백옥(白玉)과 같다고 극찬을 하였고, 대중국무역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였다. 그 중 문저포(紋紵布)가 특히 환영을 받아, 조공품으로 보내는 것 외에 원으로부터 빈번한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 사회의 고려 모시에 대한 환영은 저마포에 대한 단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저마포를 지칭하는 명칭에 ‘모(毛)’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중국어에서 ‘자(子)’는 의미 없이 명사 뒤에 붙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같은 경우를 복식 명칭에서 간단히 예로 들면, 삼(衫)-삼자(衫子), 포(袍)-포자(袍子), 모(帽)-모자(帽子),혜(鞋)-혜자(鞋子) 등이 있다. 따라서 ‘모시’의 ‘모’에 ‘자’를 붙여 ‘모자(毛子)’라는 단어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한편, 황제 여름철 질손복 중 청속부금사란자(靑速夫金絲闌子)가 있고, 그 주석에 “‘속부’는 회홍 모포 중의 정교한 것이다(速夫, 回回布之精者也)”라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모포(毛布)’도 모직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속부(速夫sufu)’가 고대 중국어의 섬세 저마포를 지칭하는 세포(總布suibu), 소포(疏布shubu), 소포(疎布shubu), 소자(疎子shuzi)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원대 여름철 질손복 중의 ‘모자’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모직물이 아닌 저마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명칭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가, 원대 중국에서의 고려 모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중국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마포를 직조하는 기구를 ‘모자국’이라 명명하게까지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모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었다.